

춤으로 보여주는 禪 '색즉시공 2009'

조계종, 禪舞 대중화 위한 공연·심포지엄 개최

선(禪) 정신을 구현한 춤 '선무(禪舞)'를 대중화하기 위한 공연과 심포지엄이 열린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 무용가와 스님, 한의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무의 철학과 원리를 소개하는 '선무 심포지엄'을 열고 다음날인 19일 오후 같은 곳에서 선무 시연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절 체험 시범 프로그램으로 조계종과 불교여성개발원 등의 후원으로 개발됐으며 '색즉시공 2009'라는 제목으로 '선무-Zen Dance 협회'(회장 이선옥)가 주관한다.

이 공연은 한국 전통의식 무용을 바탕으로 삼아 현대무용과 설치미술, 악기

등을 접목해 선(禪)의 정신을 구현하는 안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엄불과 창, 사물놀이 등을 배경으로 삼아 1인 또는 최고 6명이 함께 춤을 추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뉴욕대 예술학 박사이자 전통무용가인 이선옥 씨가 1972년 창안한 선무는 독특한 창의성과 영감, 정신적 힘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심포지엄에서는 선무 창안자인 이 박사의 '선무의 철학과 원리' 발표에 이어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서인화 박사의 '선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치유 무용의 현황', 이승후 한의사의 '선무의 한의학적 고찰', 아주대 방사선과 전문의인 전미선 박사의 '유방암 환자를 위한 선무 테라피', 무용가 김은진의 '치유선무용의 임상사례 연구와 전망', 세준 스님의 '한국 불교 선 수행과 선무의 역사적 배경'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김성우 기자

이심전심의 禪 해석한 비언어극 '더 젠'

4월 19일까지 흥대앞 씨어터제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인 선(禪)을 통해 참된 인간관을 되찾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펼쳐지는 퍼포먼스 공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3일-4월 19일 서울 흥대앞 씨어터제로서 공연되고 있는 년 버벌 퍼포먼스 '더 젠(The Zen)'이 바로 그것. 관객과 배우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공연은 희곡작가 오태영 씨의 '길 없는 길'을 연출가

심철중 씨가 각색한 작품으로 선(禪) 사상을 재해석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뜻을 전하는 비언어극이다. 배우들의 몸짓과 영상, 음악, 코메디로 스토리가 구성되는 스탠딩(서서 보는) 공연이다.

출연진은 박진원, 김형욱, 신주호, 조우리, 황순정, 정해동, 최재선, 관객 등이며, 관람료는 1만 5000원(학생)에서 2만원. (02)338-9240 김성우 기자



원응 스님.



3월 15~24일 상해시 대외문화교류협 초청전시

원응스님 금니 화엄경 중국 불자들에게 '감동설법'

불경을 대중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사경(寫經)은 불경을 먹이나 금, 은 가루로 베껴쓰는 것을 말한다. 60만 자에 달하는 화엄경을 금니(金泥)와 먹으로 각각 사경함으로써 사경수행 전통을 복원한 함양 지리산 서암정사 조실 원응(元應, 74) 스님의 화엄경 금니사경전이 중국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월 15~24일 중국 상해시 옥불선사(玉佛寺) 각군루(覺群樓) 2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화엄경 금니사경 전시회는 중국 공산당 상해시당위원회 선전부 산하의 상해시 대외문화교류협회와 상해시불교협회의 초청 및 주최로 열린다.

한국불교문화 관련으로는 중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원응 스님

이 직접 사경한 금니 화엄경과 함께 부채, 병풍 등에 쓰여진 각종 경전, 경구 등 70여 점이 전시된다. 한자 사경의 본산지인 중국에서 한국 스님이 한자로 쓴 사경전을 개최한 것은 불교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서는 시인 소동파(蘇東坡, 1036~1101) 거사가 먹으로 화엄경을 사경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가장 방대한 불경인 화엄경 전문을 사경한 이는 역사상 드물다.

원응 스님이 1985년부터 10년에 걸쳐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58만 7261자를 금니사경을 시작한 것은 서암정사 석굴법당을 조성하면서 원만한 불사회상을 염원하면서 비롯됐다. 이 불사는 법당에 극락세계를 구현해 사람사람

의 마음 가운데 아미타불의 환희스러운 불세계를 열어보임으로써 남북분단의 비극으로 희생된 무수한 고혼(孤魂)을 위로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화엄경 금니사경 또한 같은 서원을 세우고 완성했으며, 스님의 간절한 원(願)을 엿볼 수 있다.

처음에 쓴 먹 사경은 한중일 3국의 화엄경 판본들을 비교해 오답자를 바로잡아가며 10년 동안 썼으며, 금니사경에는 5년이 걸렸다. 완성된 화엄경은 접이식 책자 형태로 가로 45cm, 세로 32cm 크기의 종이 80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펼쳤을 때 전체 길이가 1300m에 달한다. 사용된 금은 4kg으로 신도들이 보시했으며, 닦아서 버린 붓만 60자루에 달한다. 작업에

필요한 다종이는 전주에서 국산 한지를 직접 사용해 물을 들인 감지(紺紙)를 사용했다.

스님은 2000년 부산 전시회를 시작으로 2001년 서울 예술의전당, 2004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규모 사경전을 개최해 서에게로부터 높은 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해 3월 대만 타이베이 국부기념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13일간 2만여 관람객이 찾아 국부기념관 개관 이래 단일전시회로서 최다 관람객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서암정사 주지 법인 스님은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염원하는 호국의 방편으로 사경이 널리 행해졌지만 조선시대에 들어 명맥이 끊어져, 현재 완전하게 보존된 화엄경 사경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스님의 금니사경은 단절된 사경의 맥을 잇는 중요한 불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응 스님은 19세에 부산 선암사에서 당대의 석암(石巖) 선사 문하로 출가해 참선 정진했다. 27세부터 지리산 벽송사에 주석하면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벽송사를 두 차례에 걸쳐 중건하고, 서암정사를 창건하면서 서도참선(書道參禪)에 매진해 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음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출력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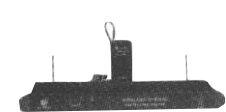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